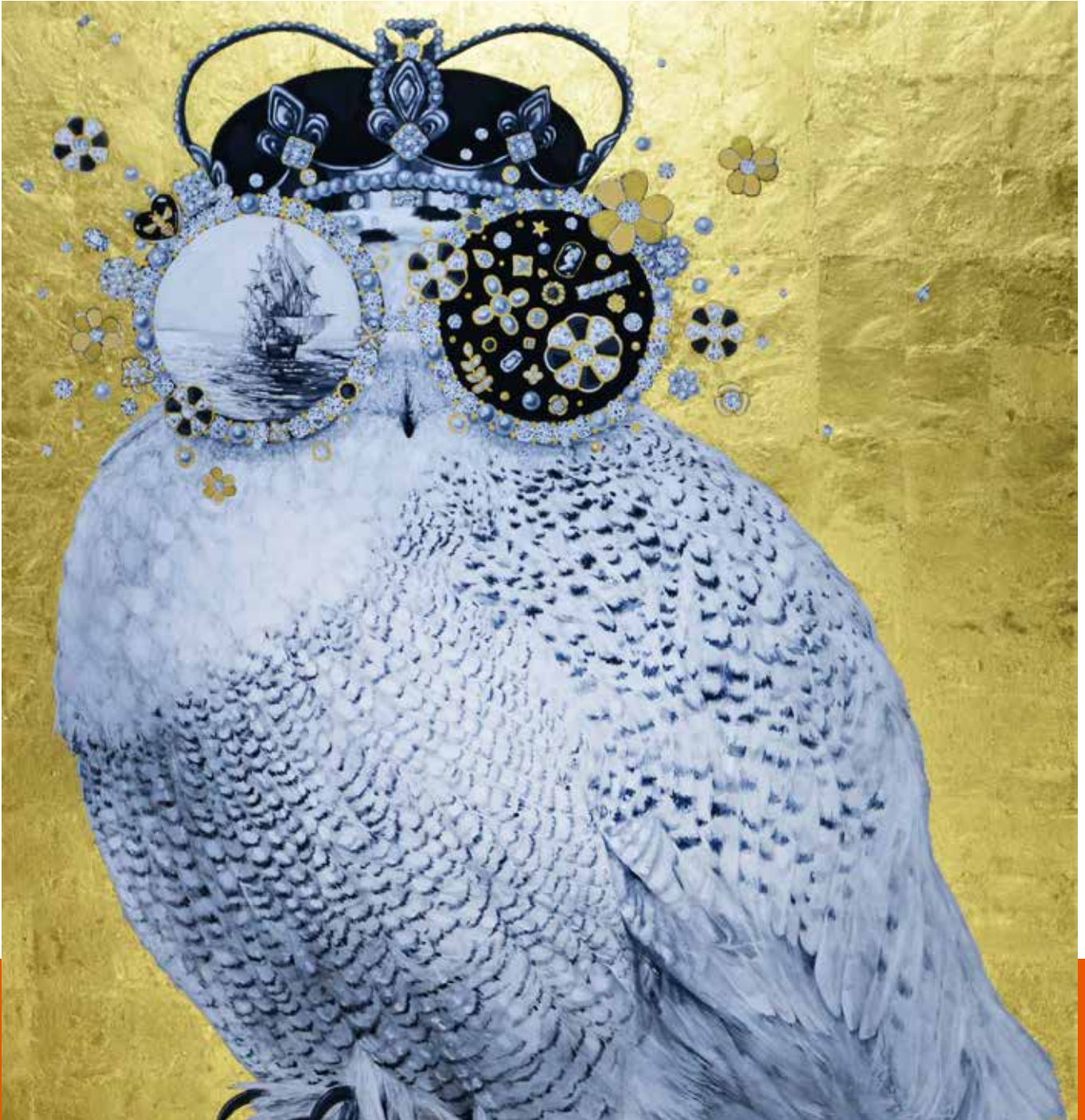


2023  
02

Printing Journal  
인쇄저널



# 종이로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 연합지류와 함께 해요.

우리의 삶과 세상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 특화된 제지 유통 서비스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경쟁력



대표전화  
02-2265-3100

unpapertop@naver.com



(주)연합지류유통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6길 40(연합B/D)  
Fax: 02-2272-5775



## Contents

등록 423호 | 월간 | 비매품 | 1990년 3월 23일 등록

발행인·편집인 김남수 | 발행일 매월 10일

편집위원장 류영식 | 편집위원 전준호, 조을기, 채연화

실무 기획홍보팀(오혜경, 김현택) 02. 333. 8631(내선239)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쌍림동 146-1)

www.spic.or.kr

인쇄·디자인·DM 에스아이디엠 02. 822. 5114

### SIDM 인쇄·디자인·DM발송·한국형 3D 팝업카드 Total Company

DM발송대행 / 정기간행물발송 / 사보,사외보,서적 전문발송 / 각종 소포,택배 포장발송 / 소량 및 다량우편물 포장발송 / 해외 포장발송 / 각종 봉투제작 / 다품종 칼라 디지털인쇄 / 개인가변화 디자인 및 인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7길 9 SIDM

TEL 02. 822. 5114 | FAX 02. 822. 4414

홈페이지 www.sidm.co.kr | 인쇄쇼핑몰 www.dmpri.co.kr

3D 입체카드 www.leeumdream.com

4

### 선거공보

· 제27대 이사장 선거공보

8

### 새로운 소식

· 선관위, 제27대 이사장 후보자등록 설명회 개최  
· 우리 조합, 3분과 위원장 회의 개최  
· 2023년도 사업·재정분과위원회 개최  
· 책자인쇄부회·상업인쇄부회, 1월 간사회 개최  
· 「성매매 암시 전단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쇄 자제

11

### Notice

· 제61회 정기총회 안내, 조합원 동정 외

12

### 이슈

· 인공지능과 인쇄업계  
· OpenAI 사의 인공지능 'ChatGPT'에게 인쇄의 미래를 묻다

14

### 클로즈업 I

· 프린피아, 「프린피아 올오픈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 국내 인쇄업계에 디지털 인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후지필름BI 아시아 태평양, 「IPA2022」 수상작 발표  
· 뛰어난 인쇄품질·혁신적 디자인에 주목

16

### 클로즈업 II

· 제일씨앤피(주), 새로운 인쇄 판매 생산 라인 가동 시작  
· 총 400m 길이의 생산 라인을 중앙 집중 관리시스템으로  
· 생산 자동화와 품질 안정화에 최우선

18

### 경영정보

· 경영인을 위한 2023 경제 전망 ①  
· 2023년 국내외 경제흐름

20

### 지식의 샘

· 2023년 2월 추천도서  
· 철학을 읽은 리더에게 | 금리의 역습  
· <MMCA 이견회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 국민화가 이중섭의 대규모 개인전



## 1번 이영수

1964년 2월 24일생  
(주)더씨엠와이  
(주)대아인쇄



### [선거 공약]

- 인쇄업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 국가 예산절감을 위한 기준가격 제시 및 정착
- 인쇄단체와 유관기관의 화합
-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을 최우선
- 수익계약 품목 창출로 재정확보
- 스마트앵커 및 인쇄진흥지구 확대 추진
- 교육기관과 연계한 우수인력 양성과 외국인 근로자 확보
- 특화품목 활성화, 2세 인쇄인 지원방안 확립
- 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
- 경영애로해소상담창구 및 견적전문위원실 신설

### [학력 및 경력]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
- (사)대한인쇄문화협회 이사 (現)
- (재)서울인쇄센터 감사 (前)
- (재)대한인쇄연구소 이사 (現)
- (사)대한그래픽기술협회 회장 (前)
-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 상임이사 (現)
- 중구상공회 수석부회장, 경영애로해소위원회 위원장 (現)
- 서울 중구청 분쟁조정 위원, 인쇄산업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 안전보건공단 14년간 위원회 활동

### [수상경력]

-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수상
- 제37회 발명의 날 (특허청장 표창)
-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 모범 중소기업인상 표창 (장관상)
- 국제지식서비스학회 (지식서비스 경영자상 수상)
-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

## 2번 김윤중

1960년 2월 15일생  
동호커뮤니케이션



### [선거 공약]

- '대형 대학병원과 MOU' 체결
- 외국인 기능 인력 양성
- 인쇄기준요금 마련
- 최저가 입찰제 폐지
- '서울특별시 지역인쇄 진흥 조례' 제정
- 중구에 '인쇄산업단지' 조성
- 수출 진흥 플랫폼 구축
- 납품대금연동제 표준계약서 도입

### [학력 및 경력]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졸업
- 연세대 공학대학원 최고위과정 제51기 수료
- 연세대 생활환경대학원 외식산업최고위자 과정 제46기 수료
-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책자부 제23대, 제24대 간사장 역임
-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 (現)
-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재정분과위원장 (現)
- (재)서울인쇄센터 운영위원 (前)
-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연합회 이사 (前)
-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연합회 대의원 (現)
- 대한인쇄문화협회 이사 (現)
- 동호커뮤니케이션 대표 (現)
- "서울특별시 중구 인쇄산업 발전 협의체" 위원 (前)
- "서울시민 규제 발굴단" 단원 (前)
- "스마트 앵커조성 TF" 위원 (前)

### [수상경력]

-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장
-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장
- 제11회 서울인쇄대상 동상
- 서울시조달청장 표창장
- 서울시장상 표창장

## 제27대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1번 이영수 후보, 2번 김윤중 후보로 확정  
2월 20일 자정까지 선거운동 실시



다가오는 제27대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가 확정됐다. 제27대 이사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식, 이하 선관위)는 지난 1월 30일 후보자 등록기간 중 등록을 마친 후보 2인에 대한 기호 추첨을 진행했다. 이날 선관위의 주재 하에 추첨을 통해 이영수 후보(주식회사 더씨엠와이)가 기호 1번, 김윤중 후보(동호커뮤니케이션)가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 각 후보는 선거운동원 명단을 제출함과 동시에 오는 2월 20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선거운동 마감 다음 날인 2월 21일 오전 10시에는 조합의 제61회 정기총회와 함께 제27대 이사장 선거가 이뤄진다.

이날 두 후보자 중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가 신임 이사장으로 당선된다. 한편, 두 후보는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기호 1번 이영수 후보는 지난 1월 30일 오후 3시 삼풍빌딩 1층(중구 수표로 10길 30)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공개했다. 이어, 기호 2번 김윤중 후보도 지난 1월 31일 오후 4시 삼일빌딩 신관 5층(중구 퇴계로 255-1)에서 '경험은 미래로! 조합은 하나로!'라는 선거 문구와 함께 개소식을 진행했다.

### 선거운동원 명단



**[기호 1번 이영수 후보]**  
글로벌로지스텍 김유석  
삼정프린텍 황명자  
유니아트 이종국  
명성기획인쇄 천무한  
태광프린팅 김광태  
예영사 김민호  
태성문화사 김영식  
동천문화사 이종완  
쥬동부피앤비 정성기  
세진문화 신승이



**[기호 2번 김윤중 후보]**  
금강프로세스 강종범  
마이문화사 이상래  
주지성토탈 김상희  
주광문당 김종만  
주영문기획 목영만  
주완산정판 전태완  
한아름인쇄 김천수  
주영성금박인쇄 강태원  
고대닷컴 문종대  
거목정보산업(주) 윤석철

# 제27대 이사장 선거공보

## 임원선거요령

### 제6조(선거운동 및 기간)

-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서 규정한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명함, 전화통신, 합동연설회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후보자 추천서를 받는 행위
- ④ 후보자는 10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1. 조합원이 아닌자.
  2. 조합 상근 임직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타 기관, 단체에 운동원으로 등록된 자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자
  4. 운동원 등록 기간 내 등록하지 아니한 자
- ⑥ 선거운동원의 명단 및 사진 2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이 부착된 인식표를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패용하여야 한다.
- ⑦ 후보자 등록이 끝나기 전에 후원회, 친목회, 기타 후보자의 인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회, 연설회 등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다.
- ⑧ 조합원사 방문은 선거운동원에 한하며,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의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⑨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8조(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통신의 게시판, 자료실 등 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권자가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10조(기부행위금지)

-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선거운동원, 그 가족 등은 친목회나 조합관련단체 등에 선거운동기간 동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후보자, 후보자가족, 선거운동원은 선거후 당선축하 또는 낙선위로를 목적으로 금품제공 등을 할 수 없다.
- ③ 관혼상제 참여의 경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제14조(공정선거의 의무)

- 각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공정한 선거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므로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선거 각서를 제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정 제9조의 당선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을 준수한다. 출석조합원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⑤항에 의거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2015.1.30. 개정)
  2. 타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흑색선전 등을 하지 않는다.
  3. 금품제공, 향응, 기부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4. 이권과 관련한 공여제공 등의 약속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단체수계계약과 관련한 약속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선거 후 당, 낙에 불구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민, 형사상의 이의 및 소송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9. 선거결과 불복에 따른 고소·고발의 결과로 패소가 확정되었을 시에는 정관 16조에 의한 제재에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징구한다.

### 제16조(준용규정)

본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준한다.(2015.1.27. 신설)

## 공지사항

- 일시 :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정기총회 중
- 장소 : 호텔 롯데 2층 크리스탈볼룸 (중구 소공동 소재)
- 지참물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선거인 :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다.
- 선거권 : 임원의 임기종료일 전 6개월 전(2022.8.20)까지 가입한 조합원으로,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총회개최 전일(2023. 2. 20, 17시)까지 해당계좌에 입금한 조합원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 선거권의 위임

임·직원이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직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를 미리 (2월 20일/월 17시까지) 조합에 제출한다.

### 투표방법

-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그 자격을 확인받고 선거인명부에 서명 후 투표용지를 수령한다.
- ③ 선거인은 기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도구로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당선결정

이사장의 당선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최다득표자로 한다.

※ 출석조합원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⑤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 위반행위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행위
- 조합원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물품)제공, 식사 및 주류, 기부행위
- 이권과 관련한 공여 제공 등의 약속 행위
- 임원에 선임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 행위
- 조합 계약과 관련한 약속 행위
- 기타 규정 및 요령에 위배하는 행위

※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⑨)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당일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조합원에게 공표합니다.

“ 우리 조합의 제27대 이사장 선거가 조합원의 순수한 의사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조합원과 후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 Printing Journal NEWS

2  
FEBRU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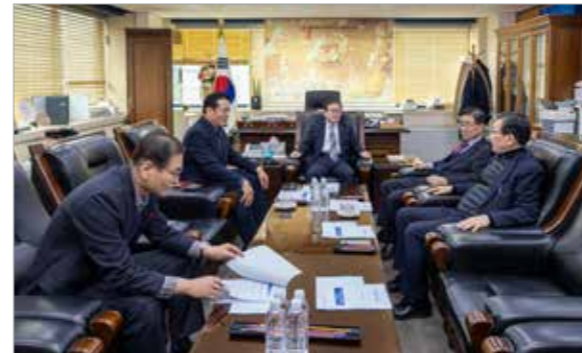
## 선관위, 제27대 이사장 후보자등록 설명회 개최 신청요령 및 준비서류 안내와 선거 일정 등 설명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식, 이하 선관위)가 지난 1월 17일 오후 2시 서울인쇄센터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제27대 이사장 선거 후보자등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관위의 이태영 위원이 진행을 맡아 참석자들에게 후보자등록 신청요령과 준비 서류, 선거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태영 위원은 “새롭게 바뀐 선거 정관·규정·요령에 유의하여 선거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궁금한 사항을 선관위에 문의하면 조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영

식 선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토대로 후보자 간의 분쟁이 없는 공정한 선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설명회가 끝난 뒤 후보자등록을 희망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신청서를 배부했으며 이영수(주)더씨엠와이 대표이사와 김윤중 동호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신청서를 수령했다. 한편, 서울인쇄조합의 제27대 이사장 선거는 2월 21일 오전 10시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며 조합의 제61대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된다.

## 우리 조합, 3분과 위원장 회의 개최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보고



우리 조합은 지난 1월 19일 3분과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결과 화합으로 새로운 도약 원년 △인쇄물 제값 받기와 판로개척 △미래 인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등 조합의 2023년도 운영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주된 내용으로 올해 제27대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1천 명 이하로 줄어든(22년 말 기준 967개사) 조합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조합 가입 홍보물(리플렛)을 제작하고 부회별 회원 증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제지·잉크업계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 인쇄물 적정가격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다방면으로 건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맞춰 국내 인쇄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쇄학과 학생 해외연수 사업을 재개하고 해외 인쇄단체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남수 이사장과 (주)에스케이씨앤피 임인영 사업분과위원장, 동호커뮤니케이션 김윤중 재정분과위원장, 경남인쇄사 김종호 조정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 2023년도 사업·재정분과위원회 개최 올해 조합 사업 및 예산 편성 논의



우리 조합은 지난 2월 6일 PJ호텔 3층 베라홀에서 조합 사업 및 예산안을 편성하는 2023년도 사업·재정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남수 이사장을 비롯하여 임인영 사업분과위원장, 김윤중 재정분과위원장 등 30여 명의 위원

이 참석했다. 이날 사업분과위원회 임인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9년 발족한 제26대 집행부 사업재정분과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이어 “출범 초기인 2019년에는 인쇄업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대외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나 2020년부터 시작된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 많아 안타깝다”고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올해 조합은 회원사 감소와 공동사업 축소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기 마지막 사업재정분과위원회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올 한해 사업과 예산안을 상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책자인쇄부회·상업인쇄부회, 신년 간사회 개최**  
신년 인사와 함께 부회 안전 논의 및 화합의 시간 가져



2023년도 책자인쇄부회 1월 간사회

우리 조합의 책자인쇄부회(간사장 전준호)와 상업인쇄부회(간사장 모종근)는 2023년 새해를 맞아 1월 간사회를 각각 개최했다.

먼저, 책자인쇄부회는 지난 1월 11일 PJ호텔 3층 베라홀에서 1월 간사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책자부회 간사회에서는 새해 인사와 함께 신년계획 및 업계에 필요한 제언이나 의견을 나누며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다. 책자인쇄부회 전준호 간사장(카오스넷근아)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신임 간사장으로 선출되어 책임과 기대에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조합과 부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상업인쇄부회는 지난 1월 18일 국도호텔 2층 두메라룸에서 1월 간사회를 열었다. 이날 상업인쇄부회의 간사회는 ‘친교와 참여, 함께하는 간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코로나로 자주 만나지 못했던 부회 회원 및 간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업인쇄부회 모종근 간사장(대광그래픽스)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모임을 가지기 어려웠으나 금년부터 간사회 모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인쇄부회(간사장 이태영)는 제27대 이사장 선거가 예정된 제61회 정기총회가 마무리된 이후 3월에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상업인쇄부회 1월 간사회

**「성매매 암시 전단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쇄 자제**  
청소년의 올바른 환경 조성을 위해 인쇄인들의 자정 노력 필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선정적이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거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오피스텔 성매매유인 전단지, 키스방·마사지업소의 호객용 전단지 등에 대해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장소 위치 등이 표시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하며 이를 무단 배포하면 벌

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인쇄한 인쇄업체 또한 유해매체물 제작·배포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감시·계도 활동을 수행하는 자발적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 열린 ‘2022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보고대회’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7개 감시단에서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유해매체물 점검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Notice

**2023년도 제61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조합의 <2023년도 제61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27대 이사장 선거’가 함께 치러질 예정이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중구 을지로 30,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문의전화 02-771-1000)

**인쇄단체 총회 일정 안내**

- |                                                                                                                                     |                                                                                                                                            |
|-------------------------------------------------------------------------------------------------------------------------------------|--------------------------------------------------------------------------------------------------------------------------------------------|
| <p><b>1. 대한인쇄문화협회 정기총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22(수) 10:30</li> <li>· 장소 : PJ호텔 4층 카라디움홀</li> </ul> | <p><b>2.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정기총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23(목) 11:00</li> <li>· 장소 : PJ호텔 4층 카라디움홀</li> </ul> |
|-------------------------------------------------------------------------------------------------------------------------------------|--------------------------------------------------------------------------------------------------------------------------------------------|

**▶ 조합원사 변동**

| 업체명        | 변동 전                         | 변동 후                                  | 변경 사항 |
|------------|------------------------------|---------------------------------------|-------|
| 한국법령정보(주)  |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7<br>창미빌딩 A-303 | 서대문구 충정로 53, 1707호<br>(충정로2가, 골든타워빌딩) | 주소    |
| 한가람커뮤니케이션즈 | 중구 마른내로 72, 504호<br>(인현동2가)  | 중구 마른내로10길 28-5<br>(인현동2가)            |       |
| 예맥         | 새암아트                         | 예맥                                    | 상호    |

**▶ 결혼**

- 신창인쇄사 정민출 대표의 딸 연희 양이 1월 28일 라비돌웨딩강남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부고**

- 마이문화사 이상래 대표님의 부친께서 2023년 1월 1일 별세하셨습니다.
- 대성당 임채형 대표님께서 2023년 1월 4일 별세하셨습니다.



인공지능과 인쇄업계

# OpenAI 사의 인공지능 ‘ChatGPT’에게 인쇄의 미래를 묻다

[최신형 인공지능 챗봇 ‘ChatGPT’에게 질문하다]

검색엔진의 한계를 넘어 자유롭게 대화하는 인공지능

자료수집뿐만 아니라 코딩·번역·계산도 가능

인쇄업계의 개략적 현황과 전망도 이해... 활용 방안 고민해야



인공지능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정리·가공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테슬라·마이크로소프트사가 투자하는 등 인공지능 업계의 대표적 선두주자로 떠오른 오픈에이아이(OpenAI)사는 자사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ChatGPT(이하, 챗GPT)’를 공개하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선사했다.

비록 프로토타입이지만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챗GPT는 간단한 생활 정보부터 어려운 수학적, 컴퓨터 코딩까지 척척 답변해준다. 이에 더해 몇 차례 추가 질문을 하면 실제로 전문가와 소통하듯 도출한 답변에서 부족했던 부분까지 스스로 찾아내므로 이력서 첨삭과 같은 광범위한 언어 능력이 필요한 영역도 소화한다.

이를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은 바로 OpenAI사가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 ‘GPT-3.5’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의 일종인 GPT-3.5는 지도학습·강화 학습을 활용하여 인터넷상의 다양한 지식 분야를 습득하고 수많은 언어를 교차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챗GPT의 공개로 일각에서는 “구글·네이버 등 주류 검색엔진 서비스 자체를 무너뜨릴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월 21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코드 레드’를 선언하고 창업주인 래리 페이지·세르게이 브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챗GPT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협력관계였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00만 달러 규모(한화 약 12.5조원)의 추가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의 퀀텀 점프(quantum jump, 물리학에서 유래한 용어로 한계를 뛰어넘는 비약적 발전을 의미한다)가 실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 ✓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머신러닝)

컴퓨터를 인간처럼 학습시켜 스스로 규칙을 형성하도록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5번기로 싸워 4:1로 승리한 구글 딥마인드 사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기계학습 기술 중 하나인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술로 만들어졌다.

## 챗GPT에게 인쇄업계의 현황과 미래를 묻다

챗GPT는 인터넷 기사, 전자책, 위키피디아 등 1,750억 개에 달하는 문장을 학습했다고 알려져 있다. 막대한 학습영역 중 이번 글에서는 챗GPT가 인쇄업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업계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했다.

결과부터 정리하면 챗GPT는 우리나라 인쇄업계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인 의미에서 업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 특히, 인쇄업계의 현안에 대한 질문에서 인쇄인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한편, 대한민국 인쇄산업의 역사와 관련하여 1961년 한국 정부가 ‘한국인쇄산업진흥공사(Korea Print Industry Promotion Corporation)’을 설립했다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적하자,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는 해당 기관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수출 촉진 등 별도의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협동조합 및 협회 등을 통해 민간단체들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재차 설명했다.

## 편의성 높아지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방안 고민해야

앞으로 챗GPT와 같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 높은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다면 거대한 혁신과 함께 인쇄산업 등 기존 산업군과의 시너지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1월 26일 열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인공지능 개발 예산으로만 약 26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쇄업계 또한 인쇄물의 품질 상승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신 인쇄 장비와 워크플로우 어플리케이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다. 하지만 최신 기술에 대한 현장 인력의 이해 부족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발전시킬 신규인력의 유입 감소로 인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 챗GPT와의 인쇄업계 관련 문답



대한민국 인쇄산업의 역사를 설명하라.

한국의 인쇄산업은 최초의 금속활자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377년에 인쇄된 불교 서적인 ‘직지’는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으로 여겨집니다.

19세기 후반, 최초의 서양식 인쇄기가 한국에 도입되었으며 이는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한 인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책, 신문, 기타 인쇄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한국의 인쇄산업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1945년 일제강점기가 종식된 후, 한국 정부는 인쇄산업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1980년대 들어 한국의 인쇄산업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했으며 현재 한국 인쇄업계는 오프셋 인쇄, 디지털 인쇄, 플렉소 인쇄, 그라비아 인쇄, 스크린 인쇄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쇄업계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 ① **디지털 전환**: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증가는 신문과 잡지와 같은 인쇄물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 ② **경쟁 심화**: 인쇄산업은 많은 수의 회사들이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며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 압박과 마진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 ③ **환경 문제**: 인쇄산업은 인쇄물의 생산이 많은 양의 에너지, 물, 그리고 다른 자원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인쇄인들은 현재 재활용과 친환경 잉크 사용 등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④ **인건비**: 인쇄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며, 인건비는 이는 상당한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 생산을 아웃소싱하게 되었습니다.

# 프린피아, 「프린피아몰 오픈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국내 인쇄업계에 디지털 인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주)프린피아 임직원 및 언론매체, 온라인 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주)스크린HD코리아가 참석했다.

(주)프린피아(대표이사 서동일)는 지난 1월 12일 프린피아 파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인쇄 소평몰 '프린피아몰'의 오픈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프린피아는 이번 행보를 통해 국내 디지털 인쇄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나아가 디지털 인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서동일 (주)프린피아 대표이사는 “디지털 인쇄는 인쇄업계에 찾아온 ‘네 번째 레볼루션(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프린피아몰 오픈을 통해 온라인·디지털 인쇄를 기반으로 국내 인쇄·출판문화의 부흥에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프린피아는 급변하고 있는 교육 시장의 개인화·맞춤화 양상에 발맞춰 POD 인쇄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기술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오픈한 프린피아몰은 △소량 제작 △실시간 견적 등을 탑재하여 고객 편의성이 높은 디지털 인쇄 솔루션을 제공한다. 1권부터 견적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 속의 책(북인북)’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 소규모 출판사 및 1인 출판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프린피아는 디지털 인쇄와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접목하여 온라인 주문부터 인쇄 전 공정을 일원화·자동화하는 인

라인 구축을 올해 중 완료한다. 영업·제작 측면에서 인력 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생산성은 크게 높여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계획이다.

또한, 잉크젯 디지털 인쇄 품질을 기존 600dpi에서 2배 높은 1,200dpi로 올리고 국제 표준에 맞는 색상관리 시스템을 정착하는 등 인쇄물 품질을 높임으로써 고객들은 선명하고 깨끗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프린피아 관계자는 “디지털 인쇄는 상대적으로 오프셋 인쇄보다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 인쇄업계가 오래도록 고민하는 신규인력 유입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 오프셋 인쇄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디지털 인쇄의 우수성을 통해 다품종 소량 인쇄 수요가 강해지는 관련 시장에서 출판문화의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프린피아는 파주에 2,200여 평 규모의 ‘프린피아 신축 디지털 센터(가칭)’을 건설 중이다. 올해 7월에 완공 예정인 디지털 센터와 계열사인 물류 전문 기업 에이피(AP)로지스틱스와 연계하여 프린피아는 주문부터 인쇄, 발송, 재고관리를 온라인으로 통합한 인쇄물 풀필먼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후지필름BI 아시아 태평양, ‘IPA2022’ 수상작 발표

뛰어난 인쇄품질·혁신적 디자인에 주목



‘베스트 이노베이션상’ 수상작 - 홍콩 ‘윈슨 엔터프라이즈’의 ‘더 보야지 오브 라이프’

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아시아 태평양(FUJIFILM Business Innovation Asia Pacific, 이하 후지필름BI)이 지난해 개최한 ‘이노베이션 프린트 어워즈 2022(Innovation Print Awards 2022, 이하 IPA2022)’의 수상작들이 지난 1월 10일 공개되어 뛰어난 인쇄품질과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노베이션 프린트 어워즈’는 후지필름BI의 디지털 인쇄 기술과 창의적인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결합해 인쇄산업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행사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쇄 전문 기업들과 디자이너, 일반 소비자들이 선보이는 혁신적인 인쇄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먼저, 전체 출품작 중 △출력 품질 △혁신성 △비즈니스 효과 △창의성 등 모든 심사 기준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둔 작품에 수여되는 ‘베스트 이노베이션상’은 홍콩 ‘윈슨 엔터프라이즈(Winson Enterprise (H.K.) Limited)’의 ‘더 보야지 오브 라이프’에게 주어졌다. 토머스 콜(Thomas Cole)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종류의 종이와 인쇄 효과로 복잡한 삶의 변화를 표현한 점이 특징으로,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표지 속 내용은 그야말로 뛰어나다”라는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아울러 출품작 중 ‘패키징 및 라벨’, ‘특수 색상 사용’, ‘디자인’, ‘도서’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작품들이 부문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개국에서 출품된 47개 작품들이 이번 IPA 2022에서 수상의 쾌거를 이뤘으며, 모든 수상작들은 일본 도쿄에 위치한 후지필름BI의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쇼룸에 전시 중이다.



‘패키징 및 라벨’ 부문 수상작 태국 ‘수메카’의 ‘크리스피 워십 라벨’



‘특수 색상 사용’ 부문 수상작 싱가포르 ‘아트테크 프린팅 앤 그래픽’의 ‘료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키트’



‘디자인’ 부문 수상작 싱가포르 ‘플러스 콜라보레이티브’의 ‘더 그레이트 미그레이션 팝업북’



‘도서’ 부문 수상작 중국 ‘산둥 다오케 그래픽 익스프레스’의 ‘블루밍 프라이머리 스크’



# 제일씨앤피(주), 새로운 인쇄 판재 생산 라인 가동 시작

총 400m 길이의 생산 라인을 중앙 집중 관리시스템으로 생산 자동화와 품질 안정화에 최우선



제일씨앤피(주)

국내 유일의 인쇄 판재 전문 생산 기업 제일씨앤피(주)(대표이사 권오관/www.jeilcnp.com)가 새로운 인쇄 판재 생산 라인의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새로운 생산 라인은 120m 길이의 1호 라인, 180m 길이의 2호 라인과 달리 총 400m의 길이로 만들어졌다.

새로운 생산 라인이 이전보다 2배 이상 길게 만들어진 이유는 균일한 사목 형성을 위한 전해연마 공정, 안정적 양극산화 처리를 위한 양극산화 공정, 판재 표면에 도포된 감광액을 건조시키는 오븐 공정의 길이를 더 늘려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품질의 판재 생산을 위한 것으로, 언코일링 이후 전처리 공정은 2층 구조로 설계되었고 2개의 오븐 공정이 각각 100m에 달한다.

또한, 전기 누전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라인 전 공정의 시공에 있어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동부스를 이용해서 모든 전기 라인을 마감했으며, 전 생산 라인의 자동화와 함께 모든 공정을 중앙 제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권오관 대표이사는, “새로운 생산 라인은 도면 설계에만 3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안정적이면서 일관된 품질의 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오랜 기간 쌓아왔던 자체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자체 기술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인쇄 판재의 기본인 판재 현상능력, 판재의 표면 장력 극대화, 인쇄 내쇄력 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한 새로운 생산 라인은 분당 26m였던 기존 라인의 생산 속도를 30m로 끌어올려 보다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더블레이어 방식의 CTcP 판재와 씨멀CTP 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인에서 30m의 속도로 생산하게 되면, 국전 기준 5만 여장(일)의 판재를 생산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일씨앤피의 새로운 인쇄 판재 생산 라인은 총 400m의 길이로 이전보다 2배 이상 길게 만들어졌다.



안정적 양극산화 처리를 위한 제일씨앤피(주)의 양극산화 공정 라인

##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

2021년 화재로 기존 생산 라인이 전소되고 새로운 생산 라인 설치와 시운전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권오관 대표이사는 전화위복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라인을 통해 생산하게 되는 판재의 안정적 품질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표시했다.

언코일링부터 세척, 전해연마, 코팅 등의 과정을 중앙 제어 방식으로 자동화 했을 뿐 아니라 판재의 커팅 공정에서도 위 아래 양쪽 칼날이 동시에 안정적으로 판재를 커팅하는 로터리 방식을 채택, 판재 끝 부분의 휘어짐을 방지해서 더 좋은 인쇄 품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신 품질 검사 시스템을 구축, 한층 높은 기준을 통과한 판재만을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2월초에 인도에 선적하는 5억원 규모의 물량을 시작으로 3월초부터 본격 수출을 시작하게 되면, 기존 라인을 통해 수출을 진행했던 인도와 브라질, 터키 및 동남아시아 등의 거래처에도 수출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전 생산 라인의 자동화와 함께 모든 공정은 중앙 제어가 가능하다

## 국내 유일 판재 생산 기업이라는 자부심과 안정적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권오관 대표이사는, “새로운 생산 라인은 판재 품질에 있어 중요한 전해연마와 코팅 공정에서 이전보다 월등한 수준의 품질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운전 기간 동안 생산 속도와 품질 안정화의 최적화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알루미늄 가격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중국 정부의 상하이 봉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원인으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인쇄 판재의 수급과 가격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일 판재 생산 기업이라는 자부심과 안정적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일씨앤피에서는 본격 양산을 시작하게 될 2월 이전이라도 관심 있는 인쇄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권오관 제일씨앤피(주)대표이사

언제든지 새로운 판재 생산 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양산 시점을 앞두고 시운전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한 권오관 대표이사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제일씨앤피를 신뢰해 준 고객사 관계자들과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해 준 직원들, 제일씨앤피의 기술력을 믿고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기술보증보험 관계자 등 다시 판재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유일의 인쇄 판재 생산 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최고 품질의 인쇄 판재를 생산, 국내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인을 위한 2023 경제 전망 ①

# 2023년 국내외 경제 흐름

‘경영인을 위한 2023 경제 전망’ 연재 순서

- ① 2023년 국내외 경제 흐름
- ② 2023년 3대 경영환경 이슈



전대미문의 팬데믹 위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려는 글로벌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악재에 이어 경기침체란 늪에 빠질 처지에 놓였다. 이미 에너지 파동을 겪고 있는 유럽에 이어 미국이 내년 상반기 정책금리 인상의 후폭풍권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70년대 말 오일쇼크기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회복 이후 경로가 어떠할지 조망한다. 출처 : LG경영연구원

### 글로벌 경제, 내년 중반이 가장 어려운 시기

세계경제는 올해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다. 2021년 코로나 침체 후 반등에 따라 6.1%로 높아졌던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2%에 이어 내년엔 2.2%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2000년대 이후 위기 기간을 제외한 세계경제 성장률의 평균이 4%였음을 감안하면, 평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경기침체 진입 시기는 국가 간 약간의 격차가 있을 것이지만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소비시장 위축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고 신흥국들의 제품 및 자원 수출이 악화되면서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침체에 진입하는 올해 중반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이번 세계경제 침체는 과거 대비 마일드

오일쇼크, 글로벌금융위기 등 이전의 세계경제 침체 시기들에 비해, 이번 침체는 상대적으로 마일드할 전망이다. 가장 비중이

큰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지더라도, 그 강도는 강하지 않고 기간도 과거 대비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취약 신흥국을 통칭하던 ‘Fragile 5’에 브라질과 인도가 포함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거대 신흥국들도 금융위기 리스크는 높지 않은 가운데 선진국 대비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침체가 마일드하다는 것은 세계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침체의 강도가 약하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을 해소할 만큼 큰 폭의 수요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올해 8.8%에서 내년 6%로 낮아지겠지만 코로나 이전 5년 평균인 3.2%의 2배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물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세계경제는 수년간 저성장-고물가 상황이지만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강도는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인 과거 오일쇼크보다 약한 ‘준(準)스타그플레이션(Quasi-stagflation)’ 양상이 예상된다.

### 스타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불경기(stagnation)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경기 불황기에는 보통 수요가 감소하므로 상품 가격(물가)도 함께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교환율·고유가·금융쇼크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의해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세계경제 침체는 이후 이어질 저성장-고물가 시대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이전 5년(2015년~2019년)과 향후 5년(내년~2027년)을 비교하면, 연평균 세계경제성장률은 3.4%에서 2.5%로 낮아지고 연평균 세계물가상승률은 3.2%에서 4.5%로 높아질 전망이다.

구조적으로 인구 측면에서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코로나를 거치며 퇴직자 급증, 이민자 감소 등으로 선진국들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고, 인구 고령화, 낮은 출산율 등으로 중국, 우리나라 등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은 인구 메리트가 사라지는 가운데 투자 확대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반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등 신산업들은 아직 효과를 실감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4%로 하락

세계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5%에서 올해 1.4%로 낮아질 전망이다. 2021년에는 수출 호조와 기업 투자 증가, 올해에는 민간소비 회복이 경제성장률을 지탱했지만, 올해는 해외수요와 대내 경제활동이 동시에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의 버팀목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침체에 빠지고, 높아진 금리 부담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상반기 보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더 낮은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된다.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고비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기업들은 이익 감소는 물론 매

출까지 줄어드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 부진, 고용 위축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와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 채권 및 자금시장 불안은 지속

미국과 한국 모두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올해 1분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물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이 인플레이션에 쏠려가면서 금리 인상이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은 5% 내외, 한국은 3%대 중후반 수준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한 후,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미 역전되어 있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은 1.5%p 이상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외환위기 대비 확충된 외환보유고 수준과 개선된 대외 채권·채무 구조를 감안하면, 국내외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본 유출로 인한 위기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외 금리 역전에 원화 가치 하락이 맞물릴 경우, 자본의 해외 이탈이 늘면서 국내 주식·채권·원화 등 가치가 동반 하락하며 국내 주가 하락, 시중금리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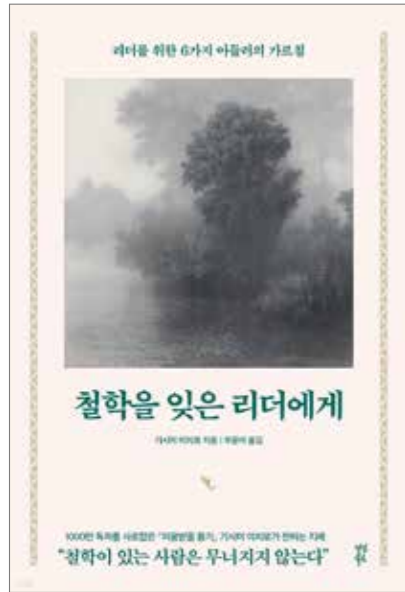
미국 경제가 올해 중반 경기침체에 진입함에 따라 미 연준은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4분기에야 금리를 소폭 인하할 전망이다. 한국은 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한미 정책금리 역전에 대한 부담 등으로 2024년에 가서야 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리 인상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해소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향후 금리 인하는 느린 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 호에서 계속)



# BOOK

## [철학을 읽은 리더에게]



저자: 기시마 이치로  
번역: 부윤아  
출판사: 다산북스

확신이 없다면  
철학에서 답을  
찾아내야 한다

신간 『철학을 읽은 리더에게』에서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심리학의 3대 거장’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의 철학을 기반으로 리더십의 방향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한다. “책을 읽는 내내 나와 팀원들의 관계를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지 명확해졌다”는 드로우 앤드류의 추천사처럼 이 책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으면서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에게는 노하우가 아닌 철학이 필요하다. 아들러가 건네는 지혜를 무기 삼아 리더의 산을 차근차근 올라가 보자.

## [금리의 역습]



저자: 에드워드 찬슬러  
번역: 임상훈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역사를 통해  
금리 인상의  
향방을 탐색하다

금리는 정책 결정권자와 경제학자, 금융인들이 수많은 역사적 성공과 실패를 쌓으며 연구해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맥락을 제대로 다루면서 공부해야 한다. 호황에는 금리를 높이고 불황에는 금리를 낮춘다는 단순한 상식만으로는 진짜 금리를 알 수 없다. 금리 인상 이후의 세계 경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2022년 연준의 첫 자이언트 스텝 선언 이후 여러 경제 전문가가 꾸준히 분석하고 전망했지만 어떤 주장도 에드워드 찬슬러의 신작 [금리의 역습]만큼 주목받지는 못했다. 《금리의 역습》은 세계 경제에 닥칠 다음 위기를 말하는 책으로써 세계적인 언론과 금융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culture

국민화가 이중섭의 대규모 개인전

# <MMCA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 이중섭>

4월 23일(일)까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국립현대미술관이 고(故) 이견희 회장의 기증품 1,488점 중 이중섭의 작품 80여 점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기존 소장하고 있던 이중섭 작품 중 10점으로 구성, 총 90여 점의 이중섭 작품만으로 <MMCA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이중섭>을 선보인다. 이번 특별전은 이중섭을 다시 보는 시도로서 오랜 기간 미술관이 축적해온 상당수의 미술품 수집과 조사·연구 성과를 전시로 풀어냈다. 이중섭(1916~1956)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시대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이번 전시는 이중섭의 작품세계를 1940년대와 1950년대로 나누어 소개한다. 1940년대는 이중섭이 일본 유학 시기부터 원산에 머무를 당시 작업한 연필화와 엽서화를, 1950년대는 제주도, 통영, 서울, 대구에서 그린 전성기의 작품 및 은지화, 편지화 등을 선보인다. 전시는 재료와 연대를 조합해 예술가 이중섭과 인간 이중섭을 고루 반영하고, 그의 면면을 보여줄 예정이다.

### 전시 안내

전시 기간 2022.8.12.(금) ~ 2023.4.23.(일)  
전시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전시실  
관람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수요일·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  
입 장 료 4,000원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



〈세 사람〉, 1942-1945, 종이에 연필, 18.3×27.7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가족과 찻노〉, 1950년대 전반기, 종이에 유채, 32×49.5cm, 국립현대미술관 이견희컬렉션.



〈상상의 동물과 사람들〉, 1940, 종이에 먹지그림, 채색, 9×14cm, 국립현대미술관 이견희컬렉션.



〈물놀이 하는 아이들〉, 1950년대 전반기, 종이에 유채, 30×40cm, 국립현대미술관 이견희컬렉션.



# k·print 2023

KIPES 2023

제26회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

K LABEL 2023

한국레이블전시회

K PACK 2023

한국패키징전시회

K DIGITAL PRINT 2023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

K TEXTILE 2023

한국텍스타일전시회

K SIGN&AD 2023

한국사인·광고전시회

2023. 8. 23 수 - 26 토

KINTEX 제2전시장

주최  
한국이앤엑스 / 대한인쇄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 한국인쇄진흥재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대한인쇄연구소 /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 한국인쇄학회

미디어후원  
The Printing House 인쇄계 PRINTINGTREN드 프리팅코리아 사인문화

참가신청 문의

한국이앤엑스

Tel. 02.551.0102

E-mail. kprint@kprint.kr

www.kprint.kr



가죽친화 우수기업



경영혁신명 중소기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조달청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창작디자인연구소



2019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

# 컬러 본능

살아있는 색을 구현하다



보유인쇄기종

- RYOBİ OFFSET 1020ST-5
- MITSUBISHI DAİMOND 3000Ls5color
- KOMORI LİTHRONE LS426



일산 장항동 공장



일산 장항동 공장



충무로 공장

KYUNGSUNG 경성문화회사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여의도동 퍼스텍빌딩(B1F, 1F, 4F, 5F, 7F, 8F, 9F) T.02-786-2999

충무로 공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8, 1층(충무로3가, 용봉빌딩) T.02-2274-5944

일산 장항동 공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66 T.031-908-97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세종(편집·디자인실) 세종 특별자치시 어진동 3-113





# SANG DONG HWA

당신의 고민!!  
40년 노하우의 **상동화**가  
해결합니다.

라벨, 플렉소, 제판, 패키징, CMS  
고민이십니까?  
진정한 전문가를 찾고 계십니까?  
40년의 노하우로  
믿을 수 있는 전문회사를 선택하십시오!



t. 02) 2279-5621 www.sangdonghwa.com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86 (쌍림빌딩 1205호) | Fax: (02) 2277-7015 | www.sangdonghwa.co.kr | sdh5621@sdh5621.com

